



전주문화원

영원한 우리전주



영원한 우리전주



발간인사	김광호 /	8
책을 엮으면서	송영상 /	10
심사소감	안 도 /	12
참가 회상기	문윤주 /	16

◎ 운문부

대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이지혜(송북초등 4년) /	32
금 상 / 완산칠봉	공나영(완산초등 3년) /	33
금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소중한(전주초등 6년) /	34
금 상 / 달 뜨면 다가공원에 가자.....	김 건(서원초등 6년) /	35
은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윤서연(효림초등 5년) /	36
은 상 / 기린봉의 속삭임	서경호(풍남초등 2년) /	37
은 상 / 완산칠봉에 올라	김지은(전일초등 5년) /	38
은 상 / 태극선	윤다나(전주동초등 2년) /	39
은 상 / 송천동이 최고	문금주(송천초등 3년) /	40
은 상 / 완산칠봉에 올라	강표희(완산초등 3년) /	42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안지수(삼천남초등 4년) /	43



동 상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이아라(송천초등 4년)	/ 44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허수진(송원초등 3년)	/ 46
동 상 / 국악의 고장 전주	나승우(양지초등 3년)	/ 47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오승환(서문초등 2년)	/ 48
동 상 / 내가 사는 우리 고사동이 전주의 최고 ...	한다영(전주초등 1년)	/ 49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이지영(조촌초등 2년)	/ 50
동 상 / 비빔밥	정다운(중산초등 1년)	/ 51
동 상 / 덕진공원	이민제(송북초등 2년)	/ 52
동 상 / 기린봉에 올라	노시형(풍남초등 4년)	/ 53
동 상 / 전주의 맛, 콩나물국밥	임태규(전주북초등 5년)	/ 54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김휘연(진북초등 1년)	/ 55
장려상 / 엄마, 완산칠봉 가자	신가연(완산초등 1년)	/ 56
장려상 / 경기전	정대현(완산초등 5년)	/ 57
장려상 / 전주의 멋 합죽선	홍성권(전주초등 4년)	/ 58
장려상 / 내가 사는 삼천동이 전주의 최고 ...	황세영(효림초등 4년)	/ 59
장려상 / 덕진공원	김지홍(조촌초등 5년)	/ 61
장려상 / 내가 사는 태평동이 전주의 최고 ...	홍명은(전주초등 6년)	/ 62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김은혜(삼천남초등 6년)	/ 63
장려상 / 어른들 말씀	변수현(효문초등 6년)	/ 64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정 준(평화초등 3년)	/ 65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진한별(우전초등 3년)	/ 66
장려상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김은성(효자초등 6년)	/ 68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김동철(금암초등 2년)	/ 69
장려상 / 전주의 자랑 경기전	정승하(중앙초등 5년)	/ 70
장려상 / 전주의 멋, 합죽선	김선국(삼천초등 6년)	/ 71
장려상 / 합죽선	원동욱(기린초등 3년)	/ 72

장려상 / 비빔밥	이예진(동북초등 3년) /	73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이은지(반월초등 1년) /	74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조형진(풍남초등 4년) /	75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조현아(평화초등 4년) /	76
장려상 / 내가 사는 송천동이 전주의 최고	정은화(송원초등 5년) /	77
장려상 / 나는 합죽선	홍철웅(서문초등 3년) /	78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김병연(신성초등 4년) /	79
장려상 / 송천동에 놀러 오세요	안상희(송북초등 5년) /	80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송경은(삼천남초등 3년) /	81
입 선 / 풍남문	안지인(삼천남초등 5년) /	82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전희수(서문초등 2년) /	83
입 선 / 다가산	정송희(전일초등 2년) /	84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신보람(전주북초등 3년) /	85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권설빈(기린초등 3년) /	86
입 선 / 전주에서 열릴 월드컵	유지현(송천초등 5년) /	87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이재민(풍남초등 3년) /	88
입 선 / 덕진공원	송은솔(전주북초등 1년) /	89
입 선 / 완산칠봉	이준형(완산초등 5년) /	90
입 선 / 전주의 자랑 '덕진공원'	이현진(송북초등 5년) /	91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소영한(전주초등 3년) /	92
입 선 / 전주의 멋 태극선	박그린(전주동초등 2년) /	93
입 선 / 완산칠봉은요	지윤수(전주초등 4년) /	94
입 선 / 완산칠봉	박 용(완산초등 3년) /	95
입 선 / 합죽선	유희도(완산초등 5년) /	97
입 선 / 완산칠봉, 전주의 자랑	강민유(완산초등 5년) /	98
입 선 / 우리의 자랑 덕진공원	정하나(조촌초등 6년) /	99

입 선 / 우리동네 송천동이 최고	최은현(송북초등 2년)	/ 100
입 선 / 완산칠봉 안에서	김선율(조촌초등 3년)	/ 101
입 선 / 완산칠봉	김지선(완산초등 3년)	/ 102
입 선 / 한지의 고장 전주	최은지(효림초등 1년)	/ 103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윤도연(효림초등 3년)	/ 104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김문이(완산초등 3년)	/ 105
입 선 / 국악의 고장 전주	김나린(효림초등 3년)	/ 107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김은유(완산초등 3년)	/ 108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유이나(완산초등 6년)	/ 109
입 선 / 완산칠봉	이경은(완산초등 3년)	/ 110
입 선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김현자(완산초등 4년)	/ 111
입 선 / 완산칠봉	공현식(완산초등 1년)	/ 112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전봄이(완산초등 3년)	/ 113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최효진(조촌초등 1년)	/ 114
입 선 / 다가산에 올라	백인택(효문초등 1년)	/ 115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이중호(서문초등 2년)	/ 116
입 선 / 다가산에 올라	이선아(전주초등 6년)	/ 117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김현명(삼천초등 3년)	/ 118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강민정(중앙초등 5년)	/ 119
입 선 / 우리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이효빈(금평초등 1년)	/ 120
입 선 / 덕진공원	김혜원(중산초등 1년)	/ 121
입 선 / 가족과 함께 완산칠봉에 올라	김단비(효자초등 6년)	/ 122
입 선 / 완산칠봉	이 슬(조촌초등 2년)	/ 124
입 선 / 까아만 뚝배기의 꽃동산	김도윤(우전초등 4년)	/ 125
입 선 / 전주의 멋 합죽선(전주의 명물)...	홍정호(송북초등 1년)	/ 127
입 선 / 깨끗한 마음 완산칠봉	김밝음(삼천남초등 2년)	/ 128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박인희(완산초등 5년)	/ 129
입 선 / 완산칠봉에 오르면	고아라(완산초등 5년)	/ 130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장연지(전라초등 3년)	/ 131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진북동	최윤지(전일초등 2년)	/ 132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이예슬(평화초등 6년)	/ 133
입 선 / 기린봉에 올라	임지선(풍남초등 3년)	/ 134
입 선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신재희(전주북초등 3년)	/ 136
입 선 / 태극선	이현주(조촌초등 2년)	/ 137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김홍근(우전초등 4년)	/ 138
입 선 / 전주의 멋 합죽선	서은설(전주북초등 4년)	/ 140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박종민(완산초등 5년)	/ 141

● 산문부

대 상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정회진(진북초등 6년)	/ 144
금 상 / 내가 사는 송천동이 전주에서 최고!	배현지(송천초등 5년)	/ 146
금 상 / 완산칠봉에 올라	한국남(완산서초등 5년)	/ 148
금 상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고가연(삼천초등 4년)	/ 150
은 상 / 전주의 멋 태극선	오하나(전주동초등 2년)	/ 152
은 상 / 우리의 맛 비빔밥	강힘찬(조촌초등 1년)	/ 154
은 상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정주연(삼천남초등 6년)	/ 156
은 상 / 완산칠봉에 올라	배석현(효림초등 4년)	/ 158
은 상 / 크고 작은 일곱개의 봉우리들	박지숙(완산초등 6년)	/ 160
은 상 / 전주의 멋을 세계로	이송이(전주북초등 6년)	/ 162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서효선(중앙초등 5년)	/ 165
동 상 / 완산칠봉	백준영(완산서초등 1년)	/ 167
동 상 / 우리고장의 자랑 합죽선	김수진(효문초등 5년)	/ 169

동 상 / 전주 비빔밥 너무 너무 마디짜요!.....	조완진(풍남초등 4년)	/ 171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옥단비(삼천남초등 4년)	/ 173
동 상 / 완산칠봉	성희진(전주초등 2년)	/ 176
동 상 / 전주의 멋 합죽선	정유라(송천초등 3년)	/ 178
동 상 / 완산칠봉에 올라	박정완(진북초등 6년)	/ 180
동 상 / 내가 사는 우리 송천동이 전주의 최고 ...	지정훈(송천초등 3년)	/ 182
동 상 / 나의 사랑 완산칠봉에 올라	황재원(완산초등 6년)	/ 183
동 상 / 전주의 자랑 덕진공원	김현진(조촌초등 5년)	/ 185
동 상 / 살기좋은 우리동네 우아동	최아영(동신초등 6년)	/ 187
장려상 / 전주의 맛 비빔밥	박지희(덕진초등 6년)	/ 189
장려상 / 한지의 고장 전주	송은경(우전초등 4년)	/ 191
장려상 / 내가 사는 우리동네 팔복동	이혜미(덕일초등 6년)	/ 193
장려상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최가영(중앙초등 6년)	/ 195
장려상 / 전주의 자랑 풍남문	최은지(서문초등 4년)	/ 197
장려상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진, 실(송북초등 3년)	/ 199
장려상 / 내가 사는 우리 진북동이 전주의 최고.....	이가영(중산초등 1년)	/ 201
장려상 / 한지의 고장 전주	김예림(금암초등 2년)	/ 203
장려상 / 완산칠봉에 올라	최다희(완산초등 4년)	/ 205
장려상 / 전주의 자랑 풍남문	이혜실(동신초등 6년)	/ 207
장려상 / 북녘에도 태극물결	김지혜(효문초등 6년)	/ 209
장려상 / 내가 사는 우리 평화동이 전주의 최고 ...	한주희(평화초등 2년)	/ 211
장려상 / 다가산	나소영(전주초등 1년)	/ 213
장려상 / 내가 사는 인후동	라한솔(전라초등 2년)	/ 215
장려상 / 전주의 맛 '비빔밥'	장다혜(조촌초등 4년)	/ 217
장려상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김채화(삼천초등 5년)	/ 219
장려상 / 한지의 고장 전주	구본길(풍남초등 1년)	/ 221

장려상 / 우리고장의 자랑 '덕진공원'	박현규(전일초등 2년)	/ 223
장려상 / 내가 사는 우리 삼천동이 전주의 최고.....	안성희(송원초등 5년)	/ 225
장려상 / 덕진공원	홍유나(전주동초등 4년)	/ 227
장려상 / 기린봉에 올라	주선하(기린초등 6년)	/ 229
장려상 / 서예의 고장 전주	이종건(금평초등 4년)	/ 231
장려상 / 우리 고장에서 열릴 멋진 2002년 월드컵 ...인	희(전주북초등 6년)	/ 233
장려상 /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	최대근(덕진초등 4년)	/ 236
입 선 / 삼천동이 전주 최고	고영준(삼천남초등 1년)	/ 238
입 선 / 한지의 고장 전주	최진아(삼천남초등 4년)	/ 239
입 선 / 내가 사는 동산동	이후혁(조촌초등 3년)	/ 241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김희경(효문초등 5년)	/ 243
입 선 / 오목대에 올라	전철용(중앙초등 5년)	/ 245
입 선 / 한지의 고장 전주	이재은(삼천남초등 4년)	/ 247
입 선 / 기린봉에 올라	백수진(중앙초등 5년)	/ 249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조달균(송북초등 1년)	/ 251
입 선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김준섭(중산초등 1년)	/ 253
입 선 / 우리 효자동	고효민(효문초등 1년)	/ 255
입 선 / 콩나물국밥	김지은(조촌초등 1년)	/ 257
입 선 / 국악의 고장 전주	천효정(전주북초등 6년)	/ 258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삼천동이 전주의 최고 ...	이승호(삼천남초등 3년)	/ 261
입 선 / 국악의 고장 전주	정소운(금평초등 2년)	/ 263
입 선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최설희(덕진초등 5년)	/ 265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삼천동이 전주의 최고 ...	이희원(삼천남초등 4년)	/ 267
입 선 / 전주하면 역시 비빔밥	심동녕(덕일초등 5년)	/ 269
입 선 / 우리 고장 맛자랑	김준섭(중앙초등 5년)	/ 271
입 선 / 내가 사는 반월동이 전주의 최고 ...	김다솜(반월초등 1년)	/ 273

입 선 / 내가 사는 덕진동	정진호(중산초등 1년)	/ 275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김동현(완산초등 1년)	/ 277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효자동이 전주의 최고 ...	최주운(효문초등 5년)	/ 278
입 선 / 공해없는 우리 마을	김다애(평화초등 1년)	/ 280
입 선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황이슬(금평초등 5년)	/ 282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김승연(삼천남초등 1년)	/ 284
입 선 / 기린봉에 올라	심윤정(전주동초등 4년)	/ 286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송천동이 전주의 최고 ...	정지은(송원초등 5년)	/ 288
입 선 / 국악원이 있는 송천동이 전주의 최고 ...	이다솜(송천초등 3년)	/ 290
입 선 / 태극무늬 부채	임진섭(전라초등 2년)	/ 292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인후3동	이화영(풍남초등 2년)	/ 294
입 선 / 서예의 고장 전주	이유리(조촌초등 5년)	/ 296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유세희(전주동초등 5년)	/ 298
입 선 / 다가공원에 올라	김영희(동북초등 4년)	/ 300
입 선 / 우리고장 전주의 자랑	정겨움(서천초등 3년)	/ 302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호성동이 전주의 최고 ...	서준형(전주북초등 2년)	/ 304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평화동이 전주의 최고 ...	최윤재(신성초등 1년)	/ 305
입 선 / 전주의 멋 합죽선	이지희(동신초등 6년)	/ 306
입 선 / 덕진공원	모세현(반월초등 3년)	/ 308
입 선 / 바로 이맛이야!	김아름(우전초등 5년)	/ 310
입 선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	신동국(완산서초등 1년)	/ 312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김진경(전주북초등 3년)	/ 314
입 선 / 내가 사는 인후동이 전주의 최고 ...	이수현(전라초등 4년)	/ 316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진북동	백주희(전일초등 2년)	/ 318
입 선 / 다가산에 올라	최하림(진북초등 1년)	/ 320
입 선 / 콩나물 국밥	최성훈(전주초등 1년)	/ 321

입 선 / 우리고장 전주	김현진(기린초등 5년) /	323
입 선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허세리(금평초등 2년) /	325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 덕진동이 전주의 최고 ...	박혜림(덕일초등 6년) /	326
입 선 / 비빔밥	김현중(송원초등 3년) /	328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김철우(효문초등 1년) /	330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강초롱(완산초등 3년) /	332
입 선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서덕현(조촌초등 4년) /	333
입 선 / 역사의 맛, 멋의 고장 전주	안지인(삼천초등 5년) /	335
입 선 / 전주의 자랑 경기전	이수연(송천초등 6년) /	337
입 선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유달라(효림초등 6년) /	339
입 선 / 전주의 맛 콩나물국밥	이민지(효자초등 2년) /	342
입 선 / 우리 고장에서 열릴 월드컵	정호수(평화초등 3년) /	344
입 선 / 기린봉에 올라	박민희(풍남초등 1년) /	346
입 선 / 우리 삼천동이 최고예요	정효선(삼천남초등 6년) /	348
입 선 / 전주의 자랑 경기전	박지영(중앙초등 5년) /	350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이정권(송북초등 1년) /	352
입 선 / 살기 좋은 덕진동	강민석(덕진초등 4년) /	353
입 선 / 내가 사는 우리동이 최고	양효준(서문초등 3년) /	355
입 선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최윤아(금암초등 1년) /	357
입 선 / 전주의 명물 비빔밥이 최고!	홍지혜(기린초등 4년) /	359
입 선 / 전주의 자랑 풍남문	이선미(덕일초등 6년) /	361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하다솜(금평초등 5년) /	363
입 선 / 전주의 자랑	윤소진(전주초등 6년) /	365
입 선 /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동네.....	이 탁(진북초등 3년) /	367
입 선 / 전주의 자랑 덕진공원	황 란(전일초등 3년) /	369
입 선 / 내가 만약 전주시장이라면	김선아(전라초등 4년) /	371

입 선 / 전주 비빔밥	신예영(전주북초등 2년) /	373
입 선 / 중바위에 올라	김인경(평화초등 1년) /	375
입 선 / 기린봉에 올라	김효진(풍남초등 4년) /	377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국승은(삼천남초등 5년) /	379
입 선 / 전주의 맛 비빔밥	김효정(중앙초등 5년) /	381
입 선 / 우리동네 자랑	송형지(효림초등 1년) /	383
입 선 / 완산칠봉	이정희(효자초등 3년) /	384
입 선 / 우리 고장의 멋 합죽선	박단아(송천초등 3년) /	386
입 선 / 내가 만일 전주시장이라면	소정훈(삼천초등 4년) /	388
입 선 / 중바위산에 올라	고세진(조춘초등 1년) /	390
입 선 / 완산칠봉	백양림(완산초등 2년) /	392
입 선 / 완산칠봉에 올라	정사랑(효문초등 2년) /	394
입 선 / 한지의 고장 전주	김유진(송원초등 5년) /	396

비빔밥

전주중산초등학교

1학년4반 정다운

엄마 정미경

전주중산초등학교

1학년4반 정다운

엄마 정미경

콩나물 모여라
고사리 모여라
고기 시금치 모두 모여라
손을 잡고 빙글빙글, 엉덩이 춤춰요.

콩나물은 맑은 물 먹고자라 통통해요
남고산성 골짜기 흠내맡고 자란
고들고들 고사리
손을 잡고 빙글빙글
엉덩이도 흔들흔들 춤을 춰요.

전주의 맛, 콩나물 국밥

전주북초등학교

5학년4반 임태규

엄마 장옥화

콩나물은
시원한 맛을 내고,

고춧가루는
얼큰한 맛을 내요.

파는
알싸한 맛을 내고,

깨소금은
고소한 맛을 내요.

새우젓은
깊은 맛을 더하고,

뚝배기는
마지막까지 맛을 지켜줘요.

모든 재료가 합쳐져
오묘한 맛의 조화를 이루고
전주 최고의 맛을 내지요.

편을 비빔밥

전주동북초등학교

3학년4반 이예진

엄마 김판순

전주동북초등학교

3학년4반 이예진

엄마 김판순

엄마의 장바구니엔
사랑이 가득 담겨있어요

아빠 닭아 배 나온
동그란 호박도 있고

개구쟁이 동생 닭아
터질듯한 상추 한입 모으고

나를 닭아 깔끔한
키다리 콩나물 안고

엄마 닭아 푸른 오이
슬그머니 챙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허기진 식욕들은

집으로 향하는
엄마의 손맛 요술에
장단을 맞추고

맨 나중에 뜨는
동그란 햇님은

기울지 않은 전주의
맛이 됩니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완산초등학교

3학년1반 김 문 이

엄 마 양 영 란

콩나물, 시금치
당근, 고기 다진 것
고추장, 깨소금...
온갖 것
별 것, 별 것이 한자리에

순가락으로
요리 조리
삼질 푹푹 하다보면
알록달록
빨갳게 단장한
먹음직스러운
비빔밥 되지요

입안엔 어느새
군침이 사르르
순갈 가득
한 입 넣으면
매콤달콤한 맛
온몸을 뜨겁게 하지요

휴— 매워
콧등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입안엔
불이 붙지만
자꾸만 먹고 싶은
꿀맛 같은 비빔밥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삼천초등학교

3학년2반 김현명

엄마이제속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 모시고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을 먹으러 가요

우리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 피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주 비빔밥 나오면
먹고 싶어서 군침이
꿀꺽 넘어가요

우리 식구 모두 행복하지요

노오란 콩나물 갓은 야채
고추장에 쓱쓱 비벼서
한 입 먹으면
너무 매워 얼굴이 빨개지지요
“오랜만에 잘 먹었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중앙초등학교

5학년3반

강민정

전주중앙초등학교

5학년3반 강민정

엄마 박경복

우리 고장 음식 비빔밥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날 위해서 만들어진

비빔밥 같아.

비빔밥은 나에게

소중한 친구요

귀한 손님 오실 때마다

대접해 드리는

비빔밥,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음식.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평화초등학교

전주평화초등학교

6학년5반 이예슬

6학년5반 이예슬

엄마 이정자

엄마 이정자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자장면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아빠의
전주식 비빔밥
요리시간

콩나물 넣고
시금치 넣고
고추장도 듬뿍
쓱쓱 쓱쓱

“여보!
참기름 한방울만 더...”
아빠의
애교어린 목소리에
우리들의 입안엔
균침만 가득

너도 한순갈
나도 한순갈

오늘따라
내동생 입이
유난히 크네.

우리의 맛 비빔밥

전주조촌초등학교

1학년4반 강 힘 찬

엄 마 최 인 현

얼마전에 우리 가족은 동물원을 구경하고 배가 고파 음식점에 들어갔다.

우리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을 먹기로 하였는데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여 기분이 좋았다.

한참을 기다리니 뚝배기에 담긴 비빔밥이 나왔다.

우리는 맛있게 보인다고 입맛을 다셨다. 뚝배기 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나물, 고사리, 도라지, 버섯, 당근, 호박나물, 콩나물등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한 가운데에는 계란 부침이 왕자처럼 앉아 빨간 고추장을 왕관처럼 쓰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싹싹 비벼 맛있게 먹고 수정과도 먹었다.

아빠께서 전주 비빔밥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다. 비빔밥에 마요네즈나 버터같은 서양 양념이 들어가면 어떤 맛일까? 색깔도 이상하고

맛도 심심하고 소화도 안될 것 같다. 역시 비빔밥에는 우리 고장의 싱싱한 나물과 매워서 하하거리는 고추장이 최고다.

피자나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엄마께서는 우리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신다.

자꾸만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주 먹어보고 사랑해주고 더 훌륭한 맛으로 발전시켜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 고장 전주를 빛내주는 비빔밥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덕진초등학교

6학년1반 박지희

엄마 박영애

우리 고장 전주에는 한번 먹어 보면 평생 잊지 못할 비빔밥이 있다.

햄, 고기, 맛살, 김 등만 먹던 나도 비빔밥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두손을 들고 말았다.

비빔밥을 처음 먹어본 것은 고모와 사촌들과 여행을 하고 돌아와 저녁밥을 먹을 때였다.

가족들 의견에 식사는 비빔밥으로 정해졌다.

처음 대면하는 비빔밥을 보니까 눈앞이 아찔하고 감감했다.

왜냐고?

뚝배기 속의 밥 위에는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날계란 등 더구나 빠알간 고추장까지 나를 보고 비웃듯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비빔밥의 위기를 모면해 볼까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희야! 수저로 비벼서 콩나물 국물하고 먹어봐. 정말 맛있어.”라

고 말하는 고모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싫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 수저로 요리조리 비벼가며 “너희 나물들 죽어봐라” 하고 으깨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수저 뿔뿔말똥 조금 떠서 입안에다 넣고 요리조리 굴러가며 씹는 순간 앗!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맛일까?

고소하고, 담백 매콤하고, 달착지근한게 나를 흥분시키고 말했다.

한마디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별미였다.

왜 이렇게 맛있을까?

그런데 나는 비빔밥을 오늘 처음 먹어본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속에 그릇을 텅텅 비워버렸다. 그래서 동생 것까지 먹어 버렸다.

그때부터 비빔밥의 진미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전주에 오면 한번 씩은 비빔밥을 먹어 보고 한결같이 맛있다고 한다.

고추장의 매콤한 맛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지만 전주 비빔밥 맛은 아마도 일품일 것이다.

전주사람이 비빔밥의 맛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까?

육류도 좋고, 생선회도 좋지만 IMF시대에 미식이 어른들께서는 값싸고 맛있는 비빔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의 고장 전주 비빔밥의 맛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맛좋은 비빔밥으로 영원히 남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조촌초등학교

4학년2반 장 다 혜

엄 마 박 성 자

옛부터 맛으로 유명한 곳은 전라도이고 전라도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곳이 우리고장 전주이다. 특히 전주 하면 ‘비빔밥’이 최고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비빔밥의 재료로는 온갖 정성을 들인 나물과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 고추장이 들어간다.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을 통과하면 전주의 명물로 비빔밥을 내세운 뜻말이 보인다. 다른 지방에서 오신 손님들이 전주의 비빔밥 맛을 보면 그 맛에 극찬을 한다고 한다.

우리 고장 전주의 ‘비빔밥’이 특히 맛 좋은 이유는 옛부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온갖 나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깨끗한 물로 고추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가족들도 외식할 때면 주로 비빔밥을 먹는다. 음식 값이 저렴하고 맛도 있고 푸짐하기 때문이다.

엄마께서도 가끔 비빔밥을 해 주신다. 콩나물, 당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온갖 재료를 삶아서 양념해서 무치고 볶고, 생각만 해

도 저절로 군침이 돈다.

전주의 축제인 풍남제가 25일부터 열린다. 다른 지방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전주의 비빔밥 맛을 보시면 영원히 잊지 못해 내년에도 또 찾아 오실 것이다. 나는 우리 고장의 명물 '비빔밥'을 사랑한다.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

전주덕진초등학교

4학년5반 최대근

엄마 정의순

경기전을 지나서 한벽루를 가면 무공해 콩나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엄마한테 들었다. 나는 아빠와 함께 아침 일찍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값도 싸고 정말 맛이 있었다.

우리 전주는 비빔밥이 얼굴이고 또 비빔밥 속에는 꼭 콩나물이 들어 있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한다. 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 다른 고장의 사람들이 우리 전주에 많이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전주의 자랑거리는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다.

너무 맛이 있어서 아빠는 한 그릇을 드셨지만 나는 세 그릇을 먹었다.

우리 전주는 옛날부터 예향의 도시라고 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예절 바른 도시로도 유명하다. 나는 내 고향 전주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태어난 곳 전주에서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다. 더 나

콩나물국밥

전주조촌초등학교

1학년3반 김 지 은

엄 마 김 인 경

‘콩나물’ 하면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 아빠는 전주에서 콩나물을 제일 맛있게 키우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콩나물이 없으면 콩나물 국밥은 먹을 수도 없어요. 콩나물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아세요?

나는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을 공장에 가서 보고 많은 관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콩나물은 전주에서도 유명한 것 중 하나에 속한다고 서울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 콩나물보다 더 맛있는 것은 전주 콩나물입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져 미스코리아가 될 수 있대요.

나는 아빠가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콩나물을 많이 먹고 아빠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콩나물이 얼마나 맛있어요.

전주하면 역시 비빔밥

전주덕일초등학교

5학년5반 심 동 녀

엄 마 이 순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다.

외할머니 생신이 되어 일가친척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외갓집은 진안을 넘어 가면 장수가 나온다. 그곳에 외갓댁이 있다.

서울, 평촌에 사시는 이모, 작은 외삼촌 가족이 전주에 살고 있는 우리집에 오시게 되었다.

우리 친척들은 들뜬 마음에 신이 났다. 모두 모인 가족수는 20명 정도. 대가족 이동으로 덕진공원 구경을 갔다. 호수에서 오리도 타고 사진도 찍고.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배가 고픈 모두는 무엇을 먹을까?로 망설이고 있는데 아빠께서 “전주하면 음식으로는 비빔밥 아닌가.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전주의 특미인 비빔밥을 먹읍시다” 이래서 덕진공원에서 가까운 ○○관에 가게 되었다.

나도 전주에 살고 있었지만 난생처음 비빔밥을 먹으러 온 것 같았다. 합죽선이 걸려 있는 실내가 약간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쫄르륵” “쫄르륵” 비빔밥을 기다리는 동안 합창소리가 나왔다. 드디어 온갖 나물이 색색으로 얹혀있고 참기름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비빔밥이 도착. 모두들 땀을 흘려가면서 먹기 시작하였다.

뚝배기 밑바닥에 눌러있는 누룽지까지 “딱” “딱” 소리내면서 먹었다. 결들여서 나온 콩나물국까지 “후루룩” 마셨다.

갑자기 내 옆에 앉아서 식사하셨던 큰 이모부께서 “역시 전주에 와서는 비빔밥을 먹어야겠구먼. 맛이 그만이네” 하시면서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방울을 닦으셨다.

시종일관 심부름에 정신이 없으셨던 엄마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모두들 맛있게 드셨다 나...”

후식으로 나온, 잣이 하얀게 띄워진 수정과도 시원스럽게 마셨다. 차창사이로 날아오는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는 외갓댁으로 향하였다. 누군가 뒤쪽에서 “외갓집 생신음식은 비빔밥 때문에 제값을 못하겠는걸...” 하는 소리와 함께 차안에서는 즐거움이 넘치는 웃음소리가 절로 흘러 나왔다.

우리 고장 맛자랑

전주중앙초등학교

5학년3반 김준섭

엄마 황점순

지난 휴일에 가족과 같이 음식점에 갔다. 음식점이 가까워질 무렵 비빔밥 냄새가 내 코로 들어왔다.

나는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빔밥을 시켰다. 비빔밥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나? 비빔밥이 맛이 없나?”

마침 그때 비빔밥이 들어왔다. 비빔밥속에는 여러가지 채소들이 들어 있었다. 콩나물, 시금치, 상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빔밥을 비벼서 먹어 보니 정말 맛이 있었다.

엄마께 여쭙어 보았다.

“엄마, 왜 여기는 손님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전통음식 먹지 않고 짜파게티나 피자, 햄버거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지 않는단다.”

우리는 비빔밥을 먹고 나와서 시내구경을 하다가 다시 배가 고파

햄버거 가게에 가자고 졸라 대었다. 아빠는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알았다”하고 햄버거 가게로 가셨다. 도착하고 보니 사람들이 꼭 차서 들어온 손님도 먹지 못하고 나가는 관국이였다.

“아빠, 비빔밥 가게와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햄버거 값도 너무 비싸요”

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중에는 머리에 물도 들이고 구두도 높고, 치마를 짧게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때 아빠께서 “지금은 너무나 유행만 따르는구나. 지금 나는 냄새는 별로 좋지 않구나! 우리 그냥 갈래”하시면서 일어서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피자를 만드는 밀가루와 치즈는 대부분 수입품이지만, 비빔밥은 우리 농부들이 정성스레 길러낸 농산물로 만들었단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돈을 낭비해서는 안되는 때라고 하셨다.

햄버거를 먹지 못하고 나올 때는 섭섭하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나니 나도 애국자가 된 것 같아 기뻐했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완산초등학교

1학년2반 김 동 현

엄 마 이 정 일

우리 집은 남부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있다. 서쪽을 바라보면 완산칠봉의 신선한 공기가 우리집까지 전해져온다. 우리집에서 중앙동 반야 비빔밥 집은 가깝게 있다.

그곳은 깨끗한 넓은 공간에 수많은 식탁과 의자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아주머니가 가지고 오셨다.

빨갭게 구운 도라지 상치저림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다. 엄마께서 조금씩 조금씩 모두 넣어서 비벼 주셨다. 아주 맛있게 보였다.

나는 침을 삼키며 한입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다. 우리가 모두 먹고나자 구수한 승냥이 나와 다 마셨다.

우리 전주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우리 서울 이모에게도 가져다 주고 싶었다. 우리반 친구들에게도 엄마랑 가서 사먹으라고 해야지.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삼천남초등학교

1학년2반 김 승 연

엄 마 이 은 주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도 좋아 살기 좋기로 유명한 전주다.

전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남녀노소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외국인도 한국하면 김치, 전주하면 비빔밥을 떠올린다. 이처럼 비빔밥은 전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비빔밥은 맛도 맛이러니와 영양면에서도 제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가지 나물들과 고기를 갖은 양념을 해서 볶고 부치고 해서 넓은 대접에 색을 맞추어 담고 그 위에 밥 한 공기 붓고 고추장 한 숟가락을 얹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는 비빔밥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쓱쓱 비벼서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고 이에 어떤 보약을 달 수 있을까? 생각한다.

이런 맛은 타 도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맛이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 고장에서 살아가면서 할머니가 그 위의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또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배워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그런 맛일 것이다.

타 도시에 가서 전주 비빔밥이라는 상호를 보고 반가워서 들어가 먹어 본 비빔밥의 맛은 우리 전주의 비빔밥의 맛이 아니다. 우리 고장만의 향토 음식은 어머니들의 정성의 손맛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인 비빔밥의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욱 더 다양한 종류의 비빔밥을 만들어 내 고장 전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북초등학교

3학년8반 김진경

엄마 조은주

‘언니의 생일날’

엄마는 언니에게 “생일날 무엇을 만들어 줄까?” 묻습니다. 언니는 “비빔밥을 만들어 주세요.” 하였습니다.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참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속으로 와~ 비빔밥은 피자보다도 햄버거보다도 돈까스보다도 더 맛있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생일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언니 생일날. 엄마가 만들어온 비빔밥. 아~ 실망.

“에게 이게 비빔밥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것 없어요? 다 나물 종류 뿐이잖아요. 엄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시면서 우리 진경이가 먹기 싫은 모양이구나 하시면서 비빔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빔밥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각종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는 등 나물 하나하나의 영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비빔밥이 참 좋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에 대한 유래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비빔밥을 보니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언니와 난 단숨에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밤 서울에 사는 친척 언니와 대구에 사는 친척 오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가 들려준 비빔밥 유래와 비빔밥에 대해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이고 전주에 오면 전주의 맛 비빔밥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 전주는 맛의 고향이고, 멋의 고향이구나. 맛스러운 비빔밥과 멋스러운 태극선 부채를 생각하면서 나는 전주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더욱 더 전주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전주”

“사랑해요, 전주의 비빔밥”

콩나물 국밥

전주초등학교

1학년3반 최성훈

엄마 김희희

“성훈아!”

아빠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나는 기운없이 “네”하고 대답했다.

“우리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자”

아빠께서는 우리가 감기가 들고 열이 나면 항상 콩나물 국밥을 사주시는 것이다.

나는 입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아빠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옷을 입혀 주셨다.

우리 가족은 삼백집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시켰다.

나는 국밥이 너무 뜨거워 다른 그릇에 덜어서 먹었다.

“호호” 입으로 불면서 땀을 ‘줄줄’ 흘렸다.

“성훈아, 맛있니?” 아빠께서 물어보셨다.

아빠께서는 뜨거운 국밥을 먹으니 속이 시원하시다고 하셨다.

“아빠 왜 뜨거운 국물을 드셨는데 속이 시원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시다.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국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다.
나는 열이 나고 아팠던 것이 다 나은 것 같았다.
콩나물 국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밥아! 나, 너 사랑해.”

역사와 맛, 멋의 고장 전주

전주삼천초등학교

5학년1반 안 지 인

엄 마 양 정 숙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곳. 우리 아빠의 일터가 있고 우리의 배움터가 있는 곳.

우리 가족의 쉼터가 있는 이곳 전주에서 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픈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우리 고장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써 흔히들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등의 전통음식과 한지나 국악 등 예향의 고장으로 불리운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전주의 멋보다 내면에 숨어있는 전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본다면 여러분은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이 고장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눈이 한곳으로 모이는 2002년 월드컵이 이곳 전주에서도 멋진 경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 전주에 오셔서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오시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각종 나물과 멋진 색깔의 조화를 이룬 비빔밥을 드셔보십시오.

푸짐하고 고소한 맛이 바로 이곳 전주의 인심입니다.

잠깐 휴식을 취할겸 덕진공원을 산책해 보십시오. 호수 위에 떠 있는 연꽃의 행렬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겁니다. 멋진 잔디와 아기자기한 나무들 사이로 오솔길을 걷노라면 어디에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야금소리를 따라 그옆 도립국악원을 방문하셔서 판소리, 가야금 등 국악의 향취를 느껴보십시오.

예향의 도시임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전에 가서서 이씨 조선의 탄생과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쇼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지요. 전주의 한지는 예로부터 그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그 쓰임새 또한 다양하여 창호지, 화선지, 태극선 등 우리생활에 편리한 용도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에어컨, 선풍기도 좋지만 여름을 여유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부채를 권하고 싶습니다. 태극선은 색깔도 아름다워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전주를 방문하신 기념으로 여러 친지들에게 합죽선을 선물로 주신다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 전주가 역사와 맛과 멋이 있는 고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피곤하실텐데 시원한 콩나물국밥으로 피로를 푸시고 돌아가셔서 우리고장 전주의 자랑을 많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의 맛 비빔밥

전주송북초등학교

1학년1반 이 정 권

엄 마 최 화 숙

제가 태어난 곳이 전주입니다.
전주의 유명한 비빔밥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번 먹어보았지만 먹을 때마다 아주 맛이 있습니다.
뚝배기 그릇에 담긴 밥에 여러가지 나물과 반찬이 맛있게 보이지요.
우리 전주시민 어머니들은 요리솜씨가 좋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친척분이 오시면 꼭 비빔밥을 소개하고 먹지요.
전통의 비빔밥 맛이 영원히 변하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